



즉시 배포용: 2022년 6월 2일

KATHY HOCHUL 주지사

뉴욕주에서 임신 중절을 보장하는 신규 법안 통과에 대한 KATHY HOCHUL 주지사
성명서

"대법원(Supreme Court)은 이번 달 Roe v. Wade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지만, 뉴욕은 준비되어 있습니다.

대다수의 미국인이 그렇듯이 저는 법원에 극우주의자가 있을 때 Roe 판결로 보장된 임신중절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. 한 번 발표되면 이러한 결정은 전국 수백만 여성의 건강, 웰빙, 경제적 안정성에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.

그러나 뉴욕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. 몇 달전, 저는 전국을 선도하는 규모인 3,500만 달러를 뉴욕 전역의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이제 Stewart-Cousins 상원 여당 원내총무, Heastie 하원의장, 의회 동료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는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보호에 집중한 새로운 종합 법안 패키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고대합니다.

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. 제가 주지사로 있는 한, 뉴욕은 임신중절 의료를 필요로 하는 모두의 안식처로 남을 것입니다."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